

도, 설 먹거리 점검 위반업소 18곳 적발

전북도,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 출범

19~23일 민관합동 8개반 24명 투입
떡·반찬류 등 다소비식품 집중
위생불량·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성수식품 50건 수거 정밀검사 의뢰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14개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총 8개 반 24명이 투입돼 도내 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집중되는 떡, 한과, 반찬류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영업장 위생관리 불량 ▲위생도 미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18개 업소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원시에 위치한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작업장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전주시에 위치한 B 업소는 반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영업주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에 종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도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떡, 한과 등 제조·가공식품과 나물류 등 조리식품, 굼비·조기 등 수산물 등 총 50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며 “일부 업소에서 위생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만큼, 영업주와 종사자 모두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강진단을 적기에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오소재 신산업 육성 본격화
재배·제품화 전주기 체계 구축
3,875억 투입 글로벌 시장 공략

전북도가 2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헴프(대마)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농생명 분야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산업계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의 일환으로, 헴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헴프산업 육성 및 제도 정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전략적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민관협의회는 2026년 1단계로 전문가 30명 중심으로 출발해 2027년 이후 산·학·연·관 100여 명 규모로 확대된다. 협의회는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지원 ▲헴프 기반 산업화·실증·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 가속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서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ha 부



전북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산업계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지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간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헴프재배단지, 헴프소재상표화센터, 헴프산업벤처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로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해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체계를 갖춘다.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법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며, 마약류관리법 등 기존 법률과 충돌 시 우선 적용되는 위상을 갖는다. 헴프안전관리지

역 지정,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재배·육종부터 제조·수출입까지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법률 제정 시 헴프의 산업적 이용과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또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돼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6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THC 0.3% 이하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으로 헴프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협의회 출범은 전북이 헴프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신성장 미래산업의 중심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도의원, 재확보 촉구...

“공수의사 10명 증원분 반영 안 돼...체계 보완 필요”

재난형 가축질병 핵심 대응 인력
80명 인당 평균 150여개 농가 담당
인접 시도 대비 인력·지원금 낮아



김정기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26일 열린 제424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공수의사 인력 운영의 현실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수의사 제도는 평상시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 방역 인력”이라며, “이러한 역할에 비해 현재 인력 운영 구조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방역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80명의 공수의사가 도내 237개 읍·면·동, 약 1

만 2천여 개 축산 농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수의사 1인당 평균 150여 개 농가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예방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술적 방역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충청남도도와 전라남도도 등 인접 광역자치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은 사육 규모에 비해 공수의사 인력 수가 적고, 월별 지원금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수의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업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수의사 인력 규모가

해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25년에는 추경을 통해 10명을 추가 확보한 반면,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동일한 인력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역 인력은 단기간 증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인력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공수의사 10명 증원분의 안정적 재확보 ▲사육 규모와 방역 업무량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운영 기준 마련 ▲공수의사 처우 및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가축방역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준비의 영역”이라며, “공수의사 인력 운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수봉 도의원 “피지컬AI 사업지 완주로...혼선 정리”

윤 의원 긴급현안질문서 확인
‘완주 전북대 이서캠퍼스’ 일대락
기획보고서·의결에 대상지 명시



윤수봉 도의원

최근 완주·전주통합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쟁점 속에서 논란이 이어졌던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사업의 대상지가 완주군 전북대 이서캠퍼스로 일단락됐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26일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 기획보고서와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사업

의결 단계에서 모두 사업 대상지를 전북혁신도시 인근 전북대 이서캠퍼스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현재 KISTEP에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 “일부에서 대상지 변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전북자치도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새만금위 9기 출범...MP 재수립 논의 속도

제9기 민간위원 위촉 마무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본격 기능 전북연계 전문가 다수 참여 복합 현안 심의 플랫폼 역할 기대

전북도는 27일 국무총리 소속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비롯한 주요 현안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투자진흥지구 등 새만금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2009년 1월 최초 발족 이후 아홉 번째 출범을 맞았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도시개발·산업·인프라뿐 아니라 환경·해양 등 복합 의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위원회는 앞으로 핵심 안건의 심의·조정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제9기 위원회가 현장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중앙부처와의 정책 조율과 실행 논의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민간위원 명단에는 전북과 연계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김지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실장은 기업·투자 현장과의 접점을 살려 기업 관점의 제도·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창원 우석대 창업지원단장은 기업유치 및 사업화 생태계 관점의 정책 제안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국토·공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의 정합성과 실행가능성 점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해양생태 분야 연구 기반을 토대로 해양 이슈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백기태 전북대 교수는 환경·에너지 융합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균형 있는 의사결정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전북도는 27일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비롯한 주요 현안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새만금 조감도.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028년 1월 26일까지 2년이며, 오는 2월 새만금에서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안 공유와 함께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9기 새만금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MP 재수립 등 주요 현안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의원,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수상구급활동 요구조사 사상 형사책임 감면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조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사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조사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동일한 구조 활동임에도 법적 보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조 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해양 안전은 사후 책임보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리다" 작심 비판

"정부 정책 입법조차 20% 수준" 美 관세 압박속 투자법 지연 지적 행정속도강조부처 합동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국회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15% 상호 관세협상에 도 불구하고 협상 내용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제청장과 체납된 국세의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나왔다.

임 청장이 체납된 국세의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이, 참 말들..."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국회의 입법속도를 질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해양폐기물 전주기 상시관리 연계체계 구축

65억 투입 예방·감시·수거·처리 민관 합동경호 캠페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감시, 수거·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026년도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65억 원을 투입해 기존 정화 중심에서 예방·감시·수거·처리가 연계되는 종합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경호 캠페인을 새로 추진하고, 폐기물 상습 유입 해안을 대상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에 1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상시 감시·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인양되는 해양쓰레기를 매입하는 수매사업(13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1억8,000만 원), 도서지역 수거 효율을 위한 선상 집하장 설치(2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군산·고창·부안 등 시군 여건에 맞춘 수거·처리 사업을 병행하고, 도서지역 선상 집하장 확충과 고창 구시포항 CCTV 설치로 유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무단투기 감시도 강화한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 때 급강 하굿둑을 통해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춘남, 군산해양수산청과 '하천폐기물 관리 거버넌스'에 참여해 처리 부담을 분담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모 지원 협의를 진행해 이달 초 마무리했다. 앞서 고창 200MW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자가 선정돼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800MW 사업자 공모 착수

29일 사전설명회...공모지침 안내 부안 인근 126km² 집적화단지 내 공공기관대표사 한정

전북도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사업'의 핵심인 800MW급 공공 해상풍력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도는 부안 인근 해역 약 126km²를 대상으로 하는 8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

업의 시행자 모집을 위해, 오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공모 지침, 참여 자격, 선정 절차, 향후 일정 등이 안내되며, 유관 기관과 기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설명회 이후 의견을 반영해 2월 초 공모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지난해 2월 기후에

너지환경부(舊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승인받은 확산단지1(1GW) 내 사업 부지다.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실현을 돕는 중추적 공공 사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 및 운영 기간, 참여 자격과 조건,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공유

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초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공공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표사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다만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참여는 허용돼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도는 발전단지 조성 역량,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 단지1이 집적화단지로서 지정되며 제도적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C

- 난방온도: 20°C
- 온맵시 실천하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사용하기
- 안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넓어진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상향 복지 혜택 시민 확대

2026년 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로,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도 7.20% 인상된 월 256만4238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로 월 207만8316원 △의료급여는 40% 이하 259만789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 311만7474원 △교육급여는 50% 이하 324만7369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2025

년 대비 각 급여별로 월 최대 약 20만 원까지 상향될 수준이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시각장애인 해소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되며,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역시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으로 현실화해 수급 문턱을 낮

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 중저가구에 대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으며, 전주지역에서는 약 900가구가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사용 수급가구에 지원금 확대

액화석유가스(LPG)사용 가구 14.7만원 추가 지원

올해부터 에너지 소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 인상 영향을 받는 등유와 LPG 사용 세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전담하는 국비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금이 확대 지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겨울철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에너지공급사의 요금 할인 혜택이 없고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등유·LPG 사용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복지 강화 차원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이력에서 최근 구입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전체 사용액의 50% 이상을 등유·LPG에 사용한 세대이다. 또 2025년도 동절기 사용 이력은 없으나 지난 2024년도 사용 이력에서 마지막 구입 연료가 등유·LPG였거나, 현재 주 난방 연료로 등유·LPG를 사용하는 세대

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주지역의 경우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약 7307가구로, 해당 세대에는 난방용 등유·LPG 구입 전용 선불카드 14만7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에너지바우처 사용 이력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자동 선정되며, 전출·입 등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았거나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는 카드사에서 주민센터로 선불카드를 배송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문자·우편 안내를 받은 뒤 순차적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수

령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선불카드는 사용 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월할 수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에너지 요금 할인을 통해 안정적인 겨울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송천3동 주민자치위원회 초대 위원장 취임

전안군 위원장 취임 주민 중심 지역발전·행정 가고 플랫폼 ‘실현’

지난 26일 전주시 송천3동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에 전안군 위원장(사진)이 취임했다. 취임식은 송천3동 분동 배경 및 취임 과정 소개 결과보고, 기념촬영, 취임사 및 위원 소개,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송천3동은 지난해 말 행정수요 과밀 해소를 위해 분동됐다. 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시의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며 훈훈함을 더했다. 초대 전안군 위원장은 “나라전 기관리공사 총괄대표”, “은고을기술킨설립 대표”, “한국전기안전협회 전북도회장”, “전·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북대학교 LINC+ 교수”, “호남대학교 전기공학 교수”, “국제와이즈넷 한국지역 운영위원” 등 다양한 실력을 갖춘 실무형 경영 전문가다. 특히 초대 전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토대로한 두터운 신뢰를 쌓아오며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이자 주민자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취임식 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도지사,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덕진구청장, 도·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초대 전안군 위원장 취임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현안을 중점으로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초대 전안군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송천3동 주민 중심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지역 발전 플랫폼이 되도록 주민 소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야생동물 사육 신고제·영업허가제’ 시행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사육 주민신고제’와 ‘영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달라진 제도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류’, ‘백색목류 외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환경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전

주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도 된다. 이 가운데 ‘백색목류 야생동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이 확인된 종(種)을 지정한 목록으로, 일부 파충류와 조류, 소형 포유류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사육·증식·양도·양수·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색목류’로 지정되지 않은 ‘백색목류 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육·거래·포획이 제한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부터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3일 이전에 신고하면 증식이나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사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대한 영업허가제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조회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미래 청년 농업인 집중’ 육성

최대 5억 정책자금,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주 후 20년 분할상환

전주시가 올해도 미래 전주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관)는 오는 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인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해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에 뜻을 둔 예비·초기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농업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주 후 20년간 원금균분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돼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농업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임차기반 조성사업 등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e지에 접속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등록해 접수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연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 △전업적 영농 유지 △교육 이수 및 영농계획 이행 등 관련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강세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미래 전주농업을 이끌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6년 모자보건사업 확대

난임 치료부터 아동 건강까지 출산 진화환경 조성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한

방 난임부부 지원’이 대표적이다. 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부부당 1회, 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4개월 동안의 한의학적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시는 기존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그간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더해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난자 해동비를 1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기존 사업도 한층 폭넓게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아동 건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상향돼 미숙아는 400만 원~2000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1

인당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유형을 구분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구분 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도 대상 연령이 기존 5세(60개월) 미만에서 12세(144개월)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맞춤형 기업 지원 산업단지’ 실태조사 착수

전주제1·2산업단지 대상

전주시가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2주간 전주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

상으로 2026년도 1분기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장 가동률 △휴·폐업 여부 △고용 인원 △매출 현황 등 기업의 경영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산업단지의 변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 및 기업 지원 기

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공무원 단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일차적 사업과 연계한 ‘산단지기’와 함께 진행된다. 산단지기는 전주효차 시니어클럽을 통해 선발된 노인 25명으

로 구성되며, 산단을 구역별로 나누어 분기별 2주간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 제1·2산업단지에는 총 150여 개의 입주기업이 있으며, 시는 이번 산단지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기반의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서 모래내지구대 ‘고령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교통안전 활동

최근 새벽 시간 종교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 모래내지구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현장 중심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모래내지구대는 새벽 시간대 이동이

잦은 고령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모래내시장 및 터미널 주변 등 무단횡단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교통약자인 고령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우려가 높은 관내 재래시장과 교통 취약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 보행자 통

행이 많은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종교단체 관계자들에게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설명하고 새벽 시간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안전 보행’ 문구가 담긴 전단을 배부하며 총

보 활동을 병행했다. 모래내지구대장 정호진 경감은 “고령자의 무단횡단은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 26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전주덕진의용소방대연합회 정상중 남성회장 취임

‘역할확대·조직안정화’ 강조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 26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그간 연합회를 이끌어온 강정석 회장의 이임을 기리고 새롭게 취임한 정상중 회장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임 강정석 전회장은 “십페소생술 교육과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주덕진의용소방대의 역할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취임 정상중 회장은 “대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변화와 도약을

이끄는 연합회를 만들어 지역 안전과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 결속을 다지며 활동 방향 공유 시간을 가졌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향상과 활동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현장과 생활안전 분야 전방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SK온, 미래기술원 업무협약

차세대 안전기술 공동 연구개발...ESS 국가경쟁력 확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보영) 전기안전연구원과 SK온(이석희, 이윤욱 대표이사) 미래기술원은 26일 종로구 SK온 본사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송길복 원장)과 SK온 미래기술원(박기수 원장)은 양 기관 주요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구를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ESS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 △화재안전성 평가 기술 고도화 △신규 소재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국제 협력 및 규제 대응 강화를 비롯해 ESS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수준 향

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기안전연구원이 보유한 에너지저장장치 연구센터 인프라를 공동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화재안전성 검증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고도화하고 LFP(Lithium Iron Phosphate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 등 신규 소재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보영 사장은 "급성장하는 ESS산업 환경 속에서 안전기술 확보는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SK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화재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과 신소재에 대한 연구성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의 안전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더욱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SK온 미래기술원은 26일 종로구 SK온 본사에서 ESS 관련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고객 신뢰 최우선"

현금 시제조사

내부통제관리 점검

27일 NH농협은행 장길환 전북본부장은 관내 영업점 현금 시제조사와 내부통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직원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 위한 현장을 살폈다.

이 날 장 본부장은 영업점 창구의 '현금 시제', '중요용지 보관', '내부통제 관리 실태' 직접 확인하며 영업점 직원들에게 규정 준수와 윤리 경영 실천을 당부했다.

장길환 본부장은 "현장 중심 내부통제 활동을 지속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경영 확립을 통해 고객 신뢰와 사랑을 받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해 금융사고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온라인 신고 시스템 본격 가동

신고 기업 정책지원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

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www.atfis.or.kr)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해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바우처 25만원 지급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 지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최대 25만원을 바우처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2월 9일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신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단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에 개업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설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 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s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및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벼 마른논 썩레질' 저탄소 농업기술 신규 등록

온실가스 배출량 17.7% 감축...노동력 절감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개발한 '벼 마른논 썩레질 재배' 기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로 신규 등록됐다.

이번 등록으로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 마른논 썩레질 재배 기술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저탄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며, 농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농산물로 인증·표시해 유통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된 마른논 썩레질 재배 기술은 모내기 전 논에 오랜 기간 물을 대고 썩레질을 반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물 대기 전 마른 상태에서 로터리 작업과 균형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농기계 작업을 줄임으로써 연료를 절감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할 수 있다.

현재 저탄소 농업기술에는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절감, 농기계 및 난방 에너지 절약 등 농업 분야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줄이는 20여 개 기술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마른논 썩레질 재배 기술은 농기계 에너지 사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인정받아 '농기계 에너지 절감' 분야에 포함됐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농기계 작업 횟수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 기존 방식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7.7%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작업 시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물을 댄 상태에서 과도한 썩레질 작업을 줄여 토양 교란과 물리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마른논 썩레질 재배' 기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로 신규 등록됐다.

아울러 양분 유실 감소에 기여하는 등 토양의 지속성과 농업환경 보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른논 썩레질 재배 기술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도 토양침식 양분

유출 방지 기술로 등록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영농 기술 자료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 공고

'스마트테크브릿지' 핵심 수단...내달 27일까지

중기부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27일 2월 27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핵심 수단으로 '기술수요 발굴', '중개·계약', '해의 기

술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거래 성과가 가장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정책 효과를 높여준다는 취지다.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신속한 기술출시 지원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또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해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이외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지원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했다.

중기부는 "스마트테크브릿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강화, 맞춤형 서비스 신설 등을 위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인 고도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고도화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tb.kibo.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오는 2월 25일까지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전북은행은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상

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족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

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종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우수분회회장, 활동영상시청, 11대·12대 회장단 이취임식 등을 진행되며 다양한 활동성과가 공유됐다.

특히 '농심전심봉사단' 발대식이 개최되며 올 한해 농심전심 운동 확산 의지를 다졌다. /김영태 기자



(주)아데카코리아, 이웃사랑 봉사기금 1천만원 전달

27일 전북자치도 기업사랑대민회 이우사랑 나눔 봉사기금 마련에 (주)아데카코리아 박종석 대표가 1천만원을 전달했다.

(주)아데카코리아 박종석 대표는 지난해 이웃사랑 나눔 봉사기금 1천만원을 후원했다.

(주)아데카코리아는 수치침가제 및

반도체 재료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글로벌기업으로서 1991년 설립됐다.

매년 이웃사랑 기부에 동참해준 (주)아데카코리아는 지역사회 모범으로 이단에 오르고 있다. 이날 박종석 대표는 "기업의 성장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도내 교직원, 군산대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혜택

대학원 진학 시 매학기 30~50만원 지원 실질적 교육협력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27일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원장 권봉오)과 '대학원 진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와 '교육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협력관을 파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교육협력관 제도를 통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질적 교육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은 국립군산대 대학원 진학시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 금액에 따라 매학기 30만~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 현재 재학중인 경우도 해당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국립대에 파견된 교육협력관 제도를 활용해 대학원 진학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 지역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중심 특수교육' 추진

2026년 특수교육 운영 방향 설명회 개최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특수교육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27일 전주평화회의장에서 '2026.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및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명회는 14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100명이 참석했다.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부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전달까지 특수교육 실행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진로 직업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 특성별 거점센터 운영 등 지역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는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업무 담당자, 교육전문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 특수교육 정책 안내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오영서 연구관이 교육부의 2026년 주요 특수교육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2부에서는 전북교육청 주요 특수교육 정책도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으로 교육 선택권 확대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강화 △협력기반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전북특수교육원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전주와 군산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중에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은 전북교육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

고 말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은 전북교육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성장 시킬 것"

긴급지원팀 3개 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2026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위기학생 통합지원팀을 위한 병원형 위센터와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병원형 위센터'에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원형 위센터는 고위기 학생의 상담·치료·대안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의 진료를 출석으로 인정받아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 정신건강전문가

가 직접 방문해 심층평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은 기존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올해 대자민병원을 추가, 총 3개 기관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학부모 선입견 및 의료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병원 연계가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와 유관기관을 연계해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병원형 위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성장시키는 회복탄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이야기' 교육용 책자 발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대상으로한 교육용 책자 '친환경농업 이야기'를 발간했다.

'친환경농업 이야기' 책자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책자는 친환경농업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초등학교 1학년~2학년에 설명한다.

강사용 교안과 교육용 영상도 함께 개

발했으며 책자 파일 다운로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및 교육용 영상 시청 유튜브 등을 통해 누구나 자료 이용 및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2026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에 '친환경농업 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50개 학교를 모집해 강사 파견 및 교재비·재료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군산대 '해양·수산 인력양성 성과보고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19일 'UP/RISE 새만금 기반 해양·수산 인력양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와 교육·학생·산학연관 운영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사업 참여 교원 및 학생, 관계자 포함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현희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 △교육진흥팀 성과보고(식품영양학과 이정희 교수) △학생진흥팀 성과보고(식품영양학과 두미애 교수) △기업진흥팀 성과보고(식품생명공학과 임승용 교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군산대 RISE사업단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모델 고도화와 교육·산학협력 체계 구축에 힘을 계획한다.

/김영태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조선의 기록문화' 진행

기록문화 가치 중요성 평생교육 기회 제공

오는 2월 국립전주박물관 성민문화강좌 박물관 인문학 / 조선의 기록문화 강좌가 이어진다.

국립전주박물관 조선의 기록문화 강좌는 오는 6월까지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조선의 기록문화' 강좌는 기록문화 가치에 대한 국민적 중요성과 예술·인문분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전주박물관 박물관 인문학은 매년 진행되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 1층강당)로 문을 연다. 이어 △태조어진과 전주(이수미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3월 3일 오후2시 국립전주박물관 1층강당) △조선왕조실록과 전주사고본(오향년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교수, 4월 1일 오후2시 국립전주박물관 1층강당)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김문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5월 6일 오후2시 국립전주박물관 1층강당).

마지막으로 양미영 한지조형 작가의 '역사의 기록, 공예와 만나다(6월 10일 오후2시 국립전주박물관 1층강당) 체험강좌는 1회차~4회차 강연 수강자 중 신청자 한해 선착순 신청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장은 "강좌는 조선왕조 정통성과 전주 위상을 재조명해 조선의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역사와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군산대, 2025년도 CAD 2급 2회차 교육 운영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CAD 2급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은 CAD 활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비전공자를 포함해 설계·도면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CAD 기초 이론·기본 도면 작성·자격증 시험 유형 이해 등 단계별 실습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국립군산대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은 재학생 진로 탐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 기초 역량 교육, 자격증 연계 프로그램, 컨설팅 및 진로·취업캠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겨울철 생활속 난방비 절약 꿀팁



온수 사용후 수도꼭지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물을 데우기 위한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 시 보일러는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보일러를 켜다가 다시켜면 오히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어요!



방한용품 적절히 사용하여 체온 유지하기

내복이나 양말을 챙겨입고, 전기매트를 사용하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돼요!

익산시 '백반여행' 시티투어 130여명 신청...30~31일 진행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준비한 가족형 시티투어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시티투어 프로그램 '백반여행'에 반하다. 방학엔 백반여행이 참여자 모집에 전국 각지에서 130여 명이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되며,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기획됐다.

익산역을 출발해 △미륵사지·백제체험관 △미륵산골 농촌체험마을 △이상향교 도소 △왕궁포레스트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농촌 체험과 자연을 고루 담았으며 가족이 함께 익산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과 대상별로 특화된 시티투어를 통해 익산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8억 3800만원 규모의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3729동을 철거해 왔다.

올해는 사업비 총 18억 3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300동 △측사, 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80동 등 총 45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경우 한 채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하며,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같이상점' 100호점 돌파 지역 상권 상생 모델 자리매김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같이상점'이 100호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이상점'은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후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점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100호점 달성은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같이상점은 카페, 미용,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천구 센터장은 "같이상점 100호점 돌파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지역상권과 연결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자원봉사가 일상에서 존중받고 체감될 수 있도록 같이상점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자궁심복지상향·상해 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 사망 등 13개 항목 보장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 청년들이 사고나 질병 걱정 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자궁심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모든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및 상근예비역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직업군인인 부사관과 장교, 보충역·대체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복자치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하며 청년 본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다.

특히 이번 보험은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항목은 총 13개 분야로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질병 사망 △상해 및 질병 입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의외상성 절단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전우 수술비 △골절 발생 위로금 △화상 발생 위로금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군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문의나 접수는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 축제학교' 참여자 모집

2월2~19일까지 접수

지속가능한축제 조성 목표

군산시가 '2026 시간여행 축제학교' 참여자와 '찾아가는 축제학교' 참가팀을 모집한다.

올해 5화제를 맞이하는 '시간여행 축제학교'는 지역축제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기획자와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축제환경 조성이 목표이며, 매년 수강생원을 초과할 만큼 주민 호응도 좋다.

교육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6회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군산시 청년플 3층 청년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며, 일반과정은 축제에 대한 기본 이해와 다른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우수사례들을, 심화과정은 직접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방안을 구상해보는 실습과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구분된다.

일반과정은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심화과정은 기존 2022년~2025년 축제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수료자에게는 과정별 수료증이 제공되며, 추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민기획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에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찾아가는 축제학교'는 5개의 팀

을 선정해 프로그램 기획, 예산 운영, 홍보 전략,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축제 운영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주도의 축제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접수 단계 중 주민 주도성이 높고, 교육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인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시간여행 축제학교와 찾아가는 축제학교 모두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군산시 누리집 및 군산시간여행축제 누리집(festival.gunsan.go.kr)에 게시된 참여자 모집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지원

전세사기 예방 도모

익산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

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D)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HUG 안

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130가구에 총 3,5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 열어

주요 업무 329건 보고

'민선 8기 성과 완성' 박차

정읍시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주요 정책 성과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월 정기 인사발령 이후 새롭게 업무를 맡은 부서장들이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유호연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 단위로 국장, 부서장, 주무 팀장이 참석했으며,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가 2026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공약 사업 329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논



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이 된 핵심 사업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한국가요촌 달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정읍 메이플랜드 엑스트림 놀이시설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 등 정읍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들이다.

이학수 시장은 "사업 수립 단계부터 산출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청 펜싱팀 최지영, 은메달 쾌거

사브르 월드컵서 경쟁력 입증

익산시청 펜싱팀 소속 최지영 선수가 국제펜싱연맹(FIE) 사브르 월드컵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지영 선수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한국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로 출전해 서울특별시장 전하영, 안산시청 김정미·서지연 선수와 함께 단체전에 나섰다.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한국시간) 한국 대표팀은 16강에서 홍콩을 꺾은 데 이어 8강에서 폴란드를 45대35로 제압했다.

이어 4강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45대44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최지영 선수

결승에서는 프랑스에 36대45로 아쉽게 패했지만, 세계 강팀들을 연이어 제압하며 값진 은메달을 목

에 걸었다.

최지영 선수는 2023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이어오며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경기력을 입증하며, 올해 예정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출을 앞두고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오는 3월 '인연만들기' 행사 개최

남녀 각각 15명씩 모집

군산시가 2월 4일까지 선남선녀의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행사 '3월애크리스마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 제공 △연애·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는 지역의 관광명소를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 청춘남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3월애크리스마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중소형 농기계 지원·농업인 부담 ↓

구입비의 50%·최대 160만원

익산시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약 5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량은 200여 대이며, 보행관리기와 동력살부기 등 정부 지원 농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500만 원 미만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16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영농경력 3년 이상, 경지소유 면적 5ha 미만인 영세농업인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를 방문하면 된다. 산업계가 없는 동 지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촌 노동력 문제 완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4억 원을 투입해 1,950여 대를 보급했다.

류숙희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화하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이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STAY 주거지원사업 대상 확대

군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 대상이었던 창업자·창업기업 직원을 포함해 올해는 관내 소재 업체에 3년 이내 취업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관내 창업자 및 관내 전입 준비 중인 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최대 2년(24개월)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 원)과 월 임대료(최대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총 45명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가 주거비 부담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받았다. 지원 자격은 △만19세 ~ 만49세 이

하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창업자, 창업기업 직원 △군산 소재 업체에 3년 이내에 취업한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LH 공급 주택의 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창업자는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내 취업자라면 사업 신청 당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종 선정 후 관내로 전입해야 한다.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로 문의가 가능하다. /군산=지승길 기자

설 맞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총 150억 규모 발행
최대 20% 할인
지역경제 회복 도모

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달 간 총 1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자금 순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품권 할인 정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께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며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이 2월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 판매는 상품권 구매 시 즉시 적용되는 선할인 10%에 더해,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후계시백으로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최대 20%의 실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100만원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와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

고창군, 여행경비지원 '고창한밤' 본격화

2월 25일까지 선착순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경비지원 사업 '고창한밤'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창한밤'은 고창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지원사업으로,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에는 211팀(602명)이 참여해 약 1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했으며, 참가

자(신청자) 중 서울·경기권 비중이 35%, 30~40대가 약 80%를 차지하는 등 외부 핵심 소비층 유입 성과를 보였다.

2026년 '고창한밤'은 2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사전 모집제로 진행된다. 사전 모집 신청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총 4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 인원 총원 시조가 마감된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창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고창사랑기부금 3천3백만원 기탁

부안군은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와 임직원 일동이 고창사랑기부금 3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창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부터 참여한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가 해마다 기부 규모를 꾸준히 늘려온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과의 상생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상완 부안군지부장을 비롯해 김춘호 농촌지원단장, 이미숙 부안군청 출장소장이 함께 참석했다.

조상완 지부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고창사랑기부는 자연스러운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한 이번 기부가 부안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참여하며 기부 규모를 확대해 주신 부안군지부 임직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과 지역 활력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2026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정주 기반 강화 집중

부안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 및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총 42동을 정비한다.

철거 비용은 지붕 구조 및 슬레이트 등 지원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반 지붕은 최대 3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빈집

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문화예술 활동가 등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총 11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 빈집 확정 후에는 임차인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과 귀농·귀촌 인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노인맞춤돌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고창군이 지난 26일 보훈회관다목적실에서 2026년도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읍·면 담당자 합동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선 △2026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연계하는 읍·면 공무원과 실제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수행

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실무자들은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서비스 중복 예방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소통 창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외에도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고창출장소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계절근로사업 가족초청 결혼이민자 교육

김제시는 27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초청 결혼이민자 127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송 절차 및 주요 개정사항 등 출입국 관리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농촌 일자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2촌 이내) 가족 초청 및 MOU 체결을 통해 전년 대비 219명 증가한 계절근로자 779명을 도입

할 예정으로 농가형 계절근로자 679명과 공공형(농협) 계절근로자 1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계절근로자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약검사비, 출국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가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퍼지컬 AI 전환 본격화

필드로봇 중심 산업 기반
활용, 실행형 AI 전략 수립

김제시가 전라산림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퍼지컬 AI 접목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국소실장, 김제시의회 의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퍼지컬 AI 접목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산업 여건에 기반한 퍼지컬 AI 적용 방향과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은 디지털 AI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인지·판단·행동이 가능한 퍼지컬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AI 기술 경쟁의 핵심 또한 기술 보유 여부에서 현장 적용과 성과 창출 역량으로 이동하

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기계, 건설기계, 특수목적 모빌리티 등 현장 중심 산업을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퍼지컬 AI를 기존 산업과 연계한 실행 중심 전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퍼지컬 AI 기술·산업·정책 동향 분석을 토대로 김제시 산업 구조에 적합한 적용 분야를 도출하고, 산업별 적용 가능 영역과 우선 검토 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단기 실행 과제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구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는 퍼지컬 AI 관련 연구·실증·산업 기능을 집적화하기 위한 입지 검토의 일환으로 구김제공공부지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 가용 부지 확보, 우수한 접근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등 측면에서 퍼지컬 AI 실증 및 산업 집적 거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후보지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구김제공공부지 활용을 통해 퍼지컬 AI 연구, 실증, 기업 활동이 연계되는 집적형 산업 공간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전략산업과 연계한 확장성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이번 연구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런서 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김제시가 보유한 산업 기반과 공공부지를 포함한 자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퍼지컬 AI를 김제시에 어떻게 접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퍼지컬 AI와 연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축산경영팀 소관 보조사업 신청

생산 기반 강화 기대
2월 4일까지 신청

부안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2026년도 축산경영팀 소관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6년 축산경영팀 소관 보조사업은 가축개량 생산성 향상 사업,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양봉 육성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약 22

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 우량정액 지원·한우 암소 유전체분석·암소 유전형질 개량 등 가축개량 생산성 향상 사업, 사료자가 배합장비·고능력 흑염소 보급·친환경 우수 생산 기반 구축 등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끝말 보조 먹이·친환경 벌통·벌꿀 포장재·꿀 생산장비 등 양봉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군은 신청 접수 마감 후 보조사업별 지침에 따른 심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

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규 사업 및 기존 보조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법률 사각지대 제로' 도전

17개 읍·면·동 대상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김제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17개 읍·면·동(요촌동, 신평동 제외)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마을변호사와 1:1로 1차적인 무료법률 상담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시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생활속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사



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는 지난 2023년 마을변호사 운영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공로패를 수상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6회를 운영해 누적 상담건수 1,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지난 26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진행했으며 매월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은 법률 고민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보건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규지정

고창군보건소가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파악 및 유행 조기 인지를 위해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27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임국희내과의원'을 신규 지정했다.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은 지정된 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해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감염병 감시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창군 지역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행 초기 단계에서 예방접종 홍보 및 고위험군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군민건강보호와 지역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표본감시 사업을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장류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래거'

문체부 2026 문화관광축제 선정 주민참여·바가지 근절 등 종합평가 국비 지원·2027년 '명예축제' 승격

순창군 대표 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칭하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년간 전국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소비자 평가, 지역 주민 참여도,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순창장류축제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며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로써 순창장류축제는 2026년 국비를 지원받고, 2027년에는 축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받아 '명예축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열린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순창군 11개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한 '읍면 먹거리 부스'는 바가지요금 없이 지역 음식을 정직한 가격에 제공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 대표 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칭하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순창군>

축제 기간에 운영된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고추장 입금님 진상행렬', '다함께 고추장 만들기', '배추 만들기 체험', '전통장 문화학교', '발효나라 1997', '고추 꼭지 따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만족도를 높였고 순창의 전통 장문화를 K-푸드의 상징적인 문화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 운영에서도 친환경 실천이 눈에 띄었다. 행사장에는 다화용기를 도입해 쓰레기 발생을 줄였고, 사용한 현수막은 그늘막 등으로 재활용했다. 이러한 노력은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읍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환경 축제에 동참한 방문객 덕분에 이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 지급

설 앞두고 7143농가에 지원 국비 직불금 3~5월 신청 접수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 원을 27일 지급했다.

이번 군비 지급 대상은 2025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농지(0.1~3.0ha)를 경작하는 농업인 7,143농가다.

지급 면적은 총 6,061ha이며, 지급 단가는 m당 65.9원으로 0.1~3ha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해 총 40억 원이 지급됐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비를 활용한 공익직불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확대 직불금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지만,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170억 원과 도비 농업 환경직불금 6억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농업인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6년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6~10월 검증 및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비를 활용한 공익직불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확대 직불금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지만,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170억 원과 도비 농업 환경직불금 6억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농업인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6년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6~10월 검증 및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소방서, 잇단 부주의 화재에 "산불 예방 각별히" 경각심 당부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최근 관내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완주군 구이면 일원에서 버려진 담배꽂이로 추정되는 불씨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는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작은 불씨가 확산되며 상가주택까지 번지는 화재로 이어져 자칫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어 26일에는 용진읍에서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산림으로 번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불발·부주의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같은 날 이서면에서는 들풀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과 빠른 진압으로 불길이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됐다.

완주소방서는 "최근 관내 화재를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농작물 소각과 담배꽂이 투기 등 위험 행위를 반드시 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개소...주거·일자리 통합지원

삼례·이서·고산 거점 통합 운영 정보·정책 상담·네트워크 구축 역할

완주군이 청년들의 주거·일자리·복지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통합 지원하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봉동읍 장거리 동창햇살장조센터 2층에 마련됐으며, 삼례·이서·고산 3개 거점공간을 함께 통합 운영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수탁단체를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의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청년정책 통합정보 제공 △정책 상담 △지역 특화사업 기획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완주 청년정책의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에는 북카페,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대강당 등 청년 활동을 위한 시설



완주군은 봉동읍 동창햇살장조센터내에 청년들의 주거·일자리·복지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통합 지원하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사진=완주군>

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거점공간은 공유주방·회의실·스튜디오 등 거점별 특화공간을 마련해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군은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센터가 청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남원시, 기업 ESG 사회공헌 선제적 유치 나선다

26일 부시장 주재 보고회 카카오·CJ롯데 사업 과제 선정

남원시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26일 이석호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를 지역 내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의무화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지역 맞춤형 사업으

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 34곳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부서별 유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스카카오 그룹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상생프로그램' △CI프레시웨이의 '사회복지시설 급식 환경개선' △롯데월드푸드의 '지역 맛집 편의점 메뉴 출시 지원' 등을 중점 대응 과제로 선정하고, 관내 대상자 모집 등 실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업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우체국물 농특산물 설 판촉 최대 40% 할인

'남원시 설 브랜드관' 운영 선물세트·전통특산물 등 참여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8일까지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을 통해 농특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20% 할인쿠폰(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외 업체별 추가 할인이 더해져, 최대 4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우체국 쇼핑몰 내 지역 브랜드관에 마련된 '남원시 설 브랜드관'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시중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자연산 호두, 잣과 같은 선물용 임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전통한과 및 강정뿐만 아니라 김



부각, 추어탕 같은 남원의 전통 특산물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남원시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단지 '기업 맞춤형 청사진' 제시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전주기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남원시는 지난 21일 곤충산업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바이오 소재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업 중심의 청사진 마련으로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본격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원시바이오산업 연구원, 원광대학교, 식용 곤충 전문기업 OMO, 한미화장품,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지역 농가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설계는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소재 생산을 목표로 하며, 전처리·

가공센터 규모와 남원만의 특화 아이템 설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됐다. 또한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체적인 방향을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출연기관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거점 단지를 바이오산업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 메디케어 소재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 연계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곤충산업 거점 단지가 들어설 남원(사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맞춤형 곤충 원료 공급과 함께 입주 혜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 구축과 R&D 제공으로 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곤충산업을 단순히 대대 단박질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바이오산업 속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경북 예천, 강원 춘천에 이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착공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촌 빈집 110동 정비...토지 활용 사업 병행

5억 투입 1년 이상 미거주 주택 대상 철거 후 주차장·텃밭 등 활용 검토

완주군이 농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빈집 110동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 원, 일반 빈집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단순히 빈집을 허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거된 부지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빈집 정비 후 토지 활용 사업'도 추진한다.

철거 후 3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마을 공용 주차장 △마을 텃밭 등을 조성하여 공익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방치된 빈집 정비는 안정한 주거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해 '살기 좋은 명품 완주'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무장에 관광·돌봄 연계...협업 행정 성과

관내 기관 연계 16회 311명 참여 만족도 4.7점...정례화 검토

완주군이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행정으로 '관광'과 '돌봄'을 함께 끌어올리며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권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무장에 관광상품 시범운영'과 관광축제과·경로장애인과가 공동 추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관광복지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 체계가 성과로 이어졌다. 관광축제과는 휠체어 이동 동선 등을 사전 점검하며 접근성이 높은 코스를 설계했고, 경로장애인과는 평소 외출·여행 기회가 적은 홀몸 어르신 등 관광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높였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 국제재활원, 완주군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해 관내 노인복지센터

(용진·구이·예은)와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총 16회, 311명(어르신·장애인)에게 관내 주요 관광지 팸투어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신체·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이동 부담을 낮춘 맞춤형 일정으로 운영됐다.

휠체어 전용 리프트 차량을 투입해 이동 편의를 높였고, 동절기 운영 여건을 반영해 전북도립미술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창포마을 등 실내 관람과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코스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실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7점을 기록하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층 참여에 적합한 소규모·저강도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설건수 어르신, 순창군에 성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지난 26일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을 담아 설건수 어르신(82세)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설 어르신은 "고향인 쌍치면 양산마을에 선산이 있어 자주 오가다 보니, 늘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제가 어린 시절 조실부모로 힘든 삶을 살았기에, 고향 취약계층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기탁의 소회를 전했다.

이에 최영민 순창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어렵게 모은 소중한 정성을 기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진안군, 전북 역도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진안군에서는 지난 26일 순창북중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 역도 선수단 20명이 진안을 방문하여 진안 역도훈련장에서 19일간의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진안군은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국 단위 전지훈련팀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지훈련팀에게는 체육시설 대관료 무료 지원을 비롯해 관광지 입장료 감면,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꿈나무 선수단과 합동훈련팀 등 총 320명이 문예체육회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유)번암조경, 장수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유)번암조경(대표 김지영)이 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수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유)번암조경은 15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 기업으로 평소에도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저소득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지영 대표는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세외수입 실무 역량 강화교육 실시

무주군은 세외수입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27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세외수입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신규 담당자와 과태료 업무 담당자를 필수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부 소속 조상엽 강사로부터 △세외수입 부과 및 세입 관리, △채납관리 및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교육을 들은 신규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과 절차부터 징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까지 사례 위주로 교육받다 보니 이해가 쉽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배운 것을 토대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 보장

무주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재해·범죄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무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무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폭발·붕괴·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비롯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치료비 등 총 37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는 무주군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배점옥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장은 "무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군정 소식지, 홍보 전단 등을 활용해 "무주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청구 절차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1건 5천만 원, 뺑소니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2건 1억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1건 3천만 원 등 총 242건에 3억 4천 964만 7천 원을 지급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민생지원금 지급도 'LTE급'

도내 올해 첫 가장 빠른 시작 지급률 94% 사용·이용률 38%

임실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가장 먼저 시작한 민생지원금이 지급률 94%를 기록하며, 초고속 LTE급으로 추진, 현장 체감형 민생정책의 속도와 효과를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임실군은 "모든 정책의 성공은 속도와 추진력에 있다"는 심 민군수의 군정운영 신념에 따라 지난 12월 올해 가장 먼저 민생지원금 추진에 발빠르게 돌입했다.

시행 2주째인 26일 현재 전체 지급 대상자의 94%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지급 첫 주에만 전체 대상 군민 2만 5,000여명 중 2만 3,500여명에 총 47억 원을 신속히 지급했다.

지급 개시 2주만에 90%를 넘어선 지급률은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빠른 속도다.

이처럼 단기간에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심 군수의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의지에 군민의 절실한 체감속요, 현장 중심의 총출력 행정 대응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난방비, 식료품비등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단순 순회 상정적 지원이 아닌 '즉각적인 생활안정 수단'으로 군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생지원금 선불카드

특히, 지원금이 선불카드형태로 지급되고 사용처가 임실군 관내 대부분의 업소로 확대되면서 '발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다.

실제로 1월 26일 기준 약 18억 원이 사용돼 이용률 38%를 기록했으며, 이는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소비촉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에서는 '속도·접근성·현장성'을 핵심으로 한 집행전략이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다.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창구'를

적극 운영하고, 마을단위 현장접수와 함께 유선안내,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병행해 단 한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 첫날부터 읍면 현장인력을 집중 배치해 짧은기간 내 대규모 지급을 차질 없이 완료함으로써 군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민생안전지원금은 2월 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임실군 내 대부분 업소와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불용농기계 현장 매각 성료

농기계 총 28대 새 주인 찾아

진안군은 지난 26일 불용농기계 현장 매각을 마무리했다.

이번 경매는 내구연한이 경과 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해 더 이상 임대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농기계 13종 36대 대상, 현장 공개경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매각 공고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매각 대상 농기계를 전시해 농업인들이 사전에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월 26일 현장 투찰과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확정했

다.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했으며, 1인당 최대 2대까지 응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장 설명과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번 경매 결과, 총 28대의 농기계가 낙찰되었으며, 밭씨받이, 승용제초기, 퇴비살포기 등 일부 품목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2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해 자가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경매는 불용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 자원 순환에도 기여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용농기계 매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와 관리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연중 농기계 임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불용 장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수급조절용 벼 전락작물 편입

벼 재배 농가 ha당 최소 1,121만 원 안정 소득 확보

임실군은 2026년부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용 벼'를 전락작물 품목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ha당 621만 원)과 전락작물직불금(ha당 500만 원)을 합산해,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ha당 최소 1,121만 원 이상의 소득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재배 소득(ha당 1,056만 원)보다 65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락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재배를 체결해야 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밥쌀용 품종 참여가 원칙이며, 흉작 등으로 쌀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10월 수확기 대책에 따라 밥쌀용 전환 여부와 전환 면적이 결정된

다. 다만, 용도 제한이 해제되어 밥쌀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RPC 등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심 민군수는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농가의 안정적인 고정 소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26년도 건설공사 합동 설계반 가동

550여건 설계추진 계획

임실군은 안전관리과장을 단장으로 시설공사 분야 시설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 2026년도 건설공사 합동 설계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합동 설계반은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2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번 합동 설계반은 재해예방 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하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총 550여건(사업비 91억

4,100만 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설계를 마치는 대로 2월 말부터 공사를 일제히 발주·착공하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 소규모 사업을 우선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 발생을 사전에 줄이고, 시설직 공무원 선·후배 간 설계기술 전수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병행해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

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관광개발 소외지역 균형발전' 촉구

한국회의원 5분 자유발언



장수군의회(의장 최환주) 한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 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

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장수군의 관광정책을 비판하며 산서면을 비롯한 소외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균형 발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회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언급하며, "산서면에 편성된 관광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군의 관광 정책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서면 등 소외된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장수군 3·1 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지공당(知今堂) △호국 유산인 호룡보루 △창원 건축적 가치가 높은 '숨은 보석'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역의 잠재력을 발

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행부에게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지역 균형을 고려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이미 개발된 곳에 예산을 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외 지역을 새로운 관광축으로 육성할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트렌드에 발맞춰 고건축물과 농경문화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택을 단순 보존이 아닌 숙박과 체험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호룡보루와 3.1운동 공원 등을 활용해 관내 학생들을 위한 '살아 있는 향토 역사 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회의원은 "관광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 다듬는 일"이라며, "그동안 흠 속에 묻힌 진주처럼 빛을 보지 못한 지역 내 관광 자원들을 적극 발굴해, 장수군이 누구나 머물다 가고 싶은 균형 잡힌 관광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호응 잇따라

유튜브 채널 개설 교육영상재시청

진안군이 지난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10개 과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교육은 상추, 수박, 미생물, 마늘 등 지역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총 10회 과정으로 편성됐으며, 눈 먼적 감축에 따른 대체 작물인 콩 재배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고추, 토양관리, 상추 과정은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획 대비 143%에 해당하는 459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교육장을 가득 채우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교육 과정은 지역 주력 및 전략 작목을 중심으로 한 작목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며, 재배기술 개선, 병해충 관리, 농업정책 및 제도 안내 등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농업 e지 사용 요령, 한랭질환 예방 수칙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생활 밀착형 정보도 병행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진안군은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교육 영상물을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제350회 임시회 개최

주요 업무보고·조례안등 23건 심사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27일 제 35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내달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실군의회는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안건은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

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의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의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등이며 총 23건을 심사한다.

개회사에서 장종민 의장은 "병오년은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요구되는 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 임실군의회는 의회 출범 당시 가졌던 책임감과 다짐을 다시 되새기며,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남은 임기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화산면지시협, 홀몸노인 가정에 연탄 800장 나눔

완주군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홀몸노인 가정에 연탄 800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이번 연탄 후원은 (사)따뜻한 완주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이사장 이종화)에서 500장, 화산면 주민이 300장을 지원해 이뤄졌으며 연탄 전달 나눔 활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화산초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홀몸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황호년 공동위원장은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미정 화산면장은 "주민과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뜻깊다"며 "행정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장명동 이웃사랑회, 25년째 이어온 '사랑의 쌀' 나눔

정읍시 장명동의 봉사단체인 이웃사랑이 지난 2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10kg) 80포(250만원 상당)를 장명동주민센터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2002년 결성된 이후 20년 넘게 매년 백미를 기탁해 온 이웃사랑회는 올해도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회원들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쌀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생활 속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용술 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이 서로를 보듬고 살피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준비한 쌀 한 포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전 동구자전거연맹 나윤채 회장, 무주에 성금 전달

고향무주발전·이웃들의 행복바라는 마음 담아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연맹 나윤채 회장이 지난 26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전달했다.

나윤채 대전광역시 동구 자전거연맹 회장은 "나고 자란 고향 무주를 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며 "언제나 무주가 발전하고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맡기게 됐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적상면이 고향인 나윤채 회장은 현재, 대전 동구에서 재생용 재료 수집과 판매업을 하는 LA윤금속을 운영 중으로, 2024년 제6대 동구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후 올해까지 고향사랑기부금 7백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국제와이즈멘 전주스타클럽, 김제 경로당에 식품꾸러미 전달

소외계층 위한 따뜻한 나눔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회장 이성국)이 27일 관내 마을 및 경로당 47개소를 대상으로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꾸러미는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조리가 간편한 라면, 천마차, 베지밀 등 총 8가지 품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전주스타클럽 회원들은 각 경로

당에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성국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스타클럽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과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근 금구면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전주스타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여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전주 평화동 '재강병원', 그랜드 오픈식 개최



전주 평화동 새강병원 (김성탁 원장(사진))이 지난 26일 그랜드 오픈식을 진행했다.

다. 탄탄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새강병원은 최신형CT, MRI등 진단장비를 갖췄다.

특히 전북현대 팀닥터로 스포츠 의학에 전문성이 탁월한 김성탁 원장이 부임한 가운데 지역최고의 스포츠재활시설까지 완비했다. 지난 24일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또한 초중증 환자들을 수용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주병원, 예수병원이 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전주 남부권에 시민들이 24시간 365일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실도 운영한다.

새강병원 응급실을 이끄는 김성탁 원장은 총남대를 졸업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외상센터 인건 갈병원 근무이력이 있다.

또한 트레이닝 거점응급의료센터 대자민병원이 일반응급실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거점응급의료센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성탁 원장은 "빠르고 정확한 소통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 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4시간 쉬지 않는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거듭 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믿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특히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환자중심의 응급실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평화동에 위치한 새강병원은 대지면적674평 지하1층~지상5층 규모로 조성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국새농민회 장수군지회, 취약계층에 200만원 기탁

(사)한국새농민회 장수군지회는 새농민회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군청을 방문해 동절기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새농민회는 농협중앙회가 전국에 농·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 3대 정신 실천에 앞장서 농가소득 증진과 과 학영농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부부에게 수여하는 새농민상 수상자 단체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저소득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익산 신동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익산시 신동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신동위원회(회장 이영숙)는 27일 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신동위원회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신동 지역 저소득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숙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움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장수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제12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시일만 모은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태진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온정 넘치는 장계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 (2026년 1월 27일 자)

- ◇부설기관(전보) ▲공간정보연구부장 이명식 ◇지역본부(전보) ▲제주지역본부장 김희범

함께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

환경을 위한 실천, 작은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이용대신 계단 이용하기



퇴근시, PC 등 사용하지 않는 전원끄기



불필요한 메일 삭제하기

〈一事一言〉



지역 의사 늘려야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2)

안중주
보건학 박사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의사와 대결해야 할지도 모를 벼랑 끝에 서 있다. 앞서 말했듯이 지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의사들을 지역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제 정착이다. 철저하고 정확한 현실 분석과 전략으로 무장해 의사 집단이 반대 핑계를 댈 수 없게끔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해 12월 30일 2040년에는 부족 의사 수가 5700~1만 1136명이라고 발표하면서 의사와 정부·국민 간 대결이 시작됐다.

정부는 추계위 결과 발표 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추계위 결과를 보고 받았고 1월 13일 3차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여부와 의대 미설치 지역 신설 의대의 정원·배출 시점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증가 폭 상한 설정 ▲2027~2031학년도까지 5년간 동일 정원을 적용하고,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은 뒤 2029년에 다음 수급 추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3일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분석한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해 의사 부

족이 아니라 오히려 2035년경에 3161명의 의사 과잉이 될 것이라고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정연은 추계위가 사용한 모형의 부적합성과 AI(인공지능) 생산성 향상(30~50%)의 미반영 등을 지적하며 자신들은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연 2303시간)과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모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런 발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봉니를 부리고 이를 토대로 또 정부·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한 밑자락 깔기이거나 앞으로 정부가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의협의 이런 전략에 추계위에 참여한 환자·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민주노총, 경실련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최근 공동 입장을 성명서로 내어 "의료계는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끝까지 밀어 넣어 추계의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근거가 없다'며 결과 전체를 흔들려는 전형적인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추천으로 추계위에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전문가로서 참여한 고려대 의대 정재훈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형식적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하게 의식한 위원회 구성의 아쉬움과 함께

장기 추계에 시계열 모형을 선택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만 활용되어 있지 않음으로 유익하게 연계하고 정제하여, 정교한 추계가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을 부분별로 다양하게 참여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특정 부문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해안 있는 타격을 지닌 전문가들을 모아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으로 도출한 의견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받아들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국가 미래와 환자, 국민 전체를 위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의료 모습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을 터이다. 또 20년, 30년 후 의료기술과 한국인의 삶의 행태가 어떻게 바뀔지, 환자와 의사의 행태가 어떻게 바뀔지도 정확하게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 이는 결국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근거가 없다'며 결과 전체를 흔들려는 전형적인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첫째, 매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한 대립을 할 때를 되돌아보면 경영계는 거의 매번 동결을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의료계는 이런 점에서 경영계와 많이 닮았다. 하지만 경영주들은 회사 문을 닫지 않는데 의사는 파업한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특정 이익집단이나 회사가 정책이나 제품과 관련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한테 청부한 사안은 거의 예외 없이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돈을 낸 곳이 이익을 얻도록 분석과 연구를 짜 맞춰 결과를 내놓는다는 사실이다. 의협의 추계 연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의사 적정 수를 결정할 때, 많은 것이 모자란 것보다는 더 낫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자라면 환자가 불편하고,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약간 남는 것은 외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의사의 보수는 과잉 진료로 하지 않는다면 약간 줄어든다고 모른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늘리기 정책에 대한 의사 집단의 반발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00년 의약분업, 윤석열 정부 때의 의사 집단 반발 등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다양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 <끝>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새만금의 담대한 실험

새만금이 다시 한번 국가 미래산업의 시험장이자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인 새만금 헬프산업클러스터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헬프 산업과 구상이 비로소 실행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규제의 벽을 넘어선 개방형 혁신과 민·관 협력을 통해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헬프는 섬유, 바이오소재, 의약·화장품, 친환경 건축자재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작물도,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와 함께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헬프 시장은 2030년 106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은 THC 0.3% 이하 헬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헬프산업의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북의 선택은 시의적절하며 전략적이다.

민관협의회는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 산업화·실증·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협력 가속화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올해 1단계 전문가 중심 운영을 시작으로, 산·학·연·관 100여 명 규모로 확대되는 협업 체계는 헬프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와 전문성을 결합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특히 새만금 농생명권역에 조성될 헬프산업클러스터는 재배부터 소재 상품화, 벤처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체계를 갖추며, 전북을 명실상부한 헬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끌어올릴 토대가

된다. 주목할 점은 '헬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다. 기존 마약류관리법과의 충돌을 해소하고 산업적 이용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담보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헬프산업은 일회성 실험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는 규제를 풀고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선진형 규제혁신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헬프산업클러스터는 전북이 추진 중인 농생명·바이오 산업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 농업 기반에 첨단 바이오 기술과 벤처 생태계를 결합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체질을 고도화하고, 청년 인재와 혁신 기업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새만금이라는 국가 전략 공간에서 헬프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이는 규제 혁신과 지역 주도 성장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다. 안전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병행하며, 헬프산업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관건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각자의 이해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 갈 때, 헬프산업클러스터는 진정한 '메가 샌드박스'로 기능할 수 있다.

새만금에서 시작된 이 도전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신성장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개방형 혁신과 협업의 힘으로 헬프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이번 민관협의회 출범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다.

문화재 열전



오수리석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석조, 불상
-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임실군 오수10길 24-22 (오수면)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제민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주시국 010-88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따뜻한 얼음 / 박남준

웃을 꺼임듯한 겉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 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겉 많은 물고기들을 두 눈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자고 있던 것들이 푸른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

이 있기 때문이다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꺼안고 눈물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
위를
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러니
그 빛나는 것이러니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영광 출생. 전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

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전주시 예술가상과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

았다.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등의 시집과 '쓸쓸한 날의 여행' 등 산문집을 남겼다.

전북타임스는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3-8800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타임스신문

고창군, 2026년 보건복지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병오년 새해, 고창군의 보건·복지 정책이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한층 더 두터워진다. 돌봄강화, 경로양곡지원방식 개선, 예방접종 확대, 보훈 정책 개선,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으로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건강과 돌봄이 일상'이 되는 보건·복지도시로 나아간다. (편집자주)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총 3974명 참여.전년대비 233명 증

- 고창군 특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도 3월부터 시행

고창군은 올해 노인일자리에 233명을 증원해 총 3974명(기존 3741명)으로 늘렸다. 경로당 일자리를 통합해 운영하고, 읍·면 승강장 관리, 경로당 스마트교육, 통합돌봄서포터즈 등 역량활용 사업으로 좋은일 자리를 확대했다.

또한 75세 이상 고위험 어르신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3월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고장형 맞춤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경로당 양곡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고창군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쌀을 1년에 2번(상·하반기)씩 지급해왔다. 하지만 오래 묵혀 두다보니 미질이 떨어지고, 보관상태에 따라 냄새 등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은 양곡 지원방식을 1년에 4차례씩 분기별로 바꿔, 신선하고 맛 좋은 쌀을 드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도 확대된다. 3월부터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종합노인복지관 식당에서 무료 급식(기준 1개당 800원 부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이외에도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찾아

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해져 감염병 예방과 가족 친화적 건강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과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방과후 돌봄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인다.

또한 군비를 투입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급간식비·야간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교육·놀이 등 맞춤형 육아 서비스와 잔디밭 도서관 조성으로 체험형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이밖에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감염병 대응관리센터를 짓고, 신림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 유형 확대 및 등록 기준 완화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권리강화

고창군은 올해부터 '취장장애'를 신규 장애 유형으로 지정해 16개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새로 도입된 취장장애를 비롯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주요 장기 장애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올해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전면 도입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해 신분 확인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또한 실물 장애인등록증 발급비용을 1회 지원하며 모바일 등록증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증원 총 3974명 참여 지역특화 의료요양통합돌봄 시행 결혼장려금 지원·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장애유형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보훈회관 본격운영 및 보훈수당 인상

가는 기억돌봄·재가치매 중점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치매 어르신 900여 명의 가정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인지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보조식 등 안심돌봄 물품을 제공한다.

고창에서 결혼하면 200만원 통크게 지원 - 백일해·HPV백신 등 아동·청소년 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올해부터 신랑·신부 중 1명이라도 고창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고창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결혼장려금으로 200만원(기존 1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된다. 하반기부터 '백일해 예방접종(임산부·영아돌봄 가족)'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백신(18~26세 여성)'이 무료로 지원된다. 현재 일반병원에서 백일해 예방백신 비용은 5만원, HPV백신(3회 접종) 비용은 30만원선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로 인플루엔자는 14세 청소년, HPV는 12세 남성 청소년

이외에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배우처 등 예산의 20%를 본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한다.

고창군보훈회관 본격 운영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난해 12월23일 준공한 고창군보훈회관이 올해 보훈가족과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된다. 보훈복지서비스 제공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의 거점을 목표로,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무궁화 카페'는 1월 12일 오픈해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15만원, 그 외 유족은 월 13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6년 고창군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군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영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 위기가구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채워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중심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